

문 1.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방 비가 올 것처럼 하늘이 어둡다.  
할머니는 방금 전에 난 소리에 깜짝 놀라셨다.
- ② 그는 근본이 미천하여 남들의 업신여김을 받았다.  
자발적 참여자를 근간으로 하여 조직이 결성되었다.
- ③ 친구들에게 그는 완전히 타락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그는 역모 사건에 휘말려 몰락한 집안의 자손이었다.
- ④ 비가 올 때에는 순회공연을 지연하기로 하였다.  
시험 시작 날짜가 9월 5일에서 9월 7일로 연장되었다.

[정답] ④

[정답해설] 지연(遲延)→ 취소(取消) /연장(延長) → 연기(延期)

- 지연(遲延): 무슨 일을 더디게 끌어 시간을 늦춤. 또는 시간이 늦추어짐.
  - ⓐ 기술 개발의 지연으로 산업 발전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
- 취소(取消): 발표한 의사를 거두어들이거나 예정된 일을 없애 버림. ‘무름’으로 순화.
  - ⓐ 강연 취소/예약 취소/훈련 취소
- 연장(延長): 시간이나 거리 따위를 본래보다 길게 늘림
  - ⓐ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년층의 인구가 증가되었다./마을버스 노선을 연장 운행하였다.
- 연기(延期): 정해진 기한을 뒤로 물려서 늘림
  - ⓐ 시험이 한 달 뒤로 연기되었다./급한 일이 생겨 약속을 내일로 연기했다.

[오답해설]

- ① • 방금(方今): 「1」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에. ㉠금방01(今方) ⓐ 방금 떠나다/그는 방금 잠에서 깨어났다. 「2」 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에. ㉡금방01 「3」 말하고 있는 시점부터 바로 조금 후에
  - 금방(今方): 「1」 =방금 ⓐ 금방 구워 낸 빵/금방 밥 먹었는데 또 뭘 먹자고 그러니? 「2」 =방금 ⓐ 금방 비가 올 것처럼 하늘이 어둡다./그는 동생에게 소리치고 나서 금방 후회하였다. 「3」 =방금 ⓐ 금방 달려들기라도 할 듯 벌떡 몸을 일으켰다.
- ② • 근본(根本): 자라 온 환경이나 혈통.
  - ⓐ 그는 근본이 좋은 사람이다./근본 있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역시 다르다./네가 근본이 미천한 만큼 남들이 업신여기기 쉬우나 남이야 업신여기든 말든 내 앞만 닦으면 그만이니...
  - 근간(根幹): 사물의 바탕이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것.
    - ⓐ 국가의 근간 사업/근간을 이루다
- ③ • 타락(墮落):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
  - ⓐ 타락의 길을 걷다/신유년에서 임술년에 걸쳐서 정치의 타락은 극도에 달하였다.
  - 몰락(沒落): 「1」 재물이나 세력 따위가 쇠하여 보잘것없이 됨. ⓐ 경제적 몰락. 「2」 멸망하여 모조리 없어짐
    - ⓐ 로마 제국의 몰락/궁예의 몰락과 왕건의 건국.

문 2.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물어도 보았다.
- ② 매일같이 지각하던 김 선생이 직장을 그만두었다.
- ③ 이번 시험에서 우리 중 안 되어도 세 명은 합격할 듯하다.
- ④ 지난주에 발생한 사고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회의를 했다.

[정답] ③

[정답해설]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의 의미일 때 ‘안되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이때 ‘안되다’는 ‘잘되다’의 반대말로 부정의 의미가 없다.

[참고] 동사 ‘잘되다’와 ‘안되다’

잘되다(동사)	안되다(동사)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썩 좋게 이루어지다. ● 농사가 <u>잘되다</u> / 일이 <u>잘돼</u> 간다. 회사를 그만둔 것이 차라리 <u>잘됐다</u> . 사업이 <u>잘되다</u> . / 소화가 <u>잘되다</u> .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과일 농사가 <u>안되어</u> 큰일이다. 공부가 <u>안돼서</u> 잠깐 쉬고 있다.
사람이 훌륭하게 되다. ● 부모님들은 늘 자식 <u>잘되기를</u> 바란다. 자식이 <u>잘되다</u> . / 후손이 <u>잘되다</u> .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 ● 자식이 <u>안되기를</u> 바라는 부모는 없다.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른다. ● 우리 중 <u>잘되어야</u> 두 명만이 합격할 수 있다. 그녀는 <u>잘되어야</u> 십팔구 세밖에 되지 않아 보였다. 저 사람은 <u>잘돼</u> 봐야 과장이야. 그 이상은 힘들어.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 ● 이번 시험에서 우리 중 <u>안되어도</u> 세 명은 합격할 것 같다.
(반어적 표현으로) 결과가 좋지 아니하게 되다. ● 시험에 떨어졌다고 하자 오빠는 <u>잘됐다</u> 며 약을 올렸다. “그놈 고소하게 <u>잘됐다</u> 할 여자가 많을걸요.”	

[오답해설] ① 본용언 뒤에 조사가 붙으면 연결어미가 ‘아/어’라도 반드시 띄어 쓴다.  
 ② 때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오는 ‘같이’는 조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성씨 뒤에 오는 호칭어 ‘선생’은 띄어 쓴다.  
 ④ ‘지난주’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추측이나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으)르지’는 붙여 쓴다.

문 3. 높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ㄱ.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셨습니다.
- ㄴ. 선생님께서는 휴일에는 댁에 계십니다.
- ㄷ. 여러분, 아이들을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 ㄹ. 우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다녀왔다.

- ① ㄱ, ㄴ: 문장의 주체를 높이고 있다.
- ② ㄱ, ㄴ, ㄷ: 듣는 이를 높이고 있다.
- ③ ㄴ, ㄹ: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 ④ ㄷ, ㄹ: 목적어를 높이고 있으므로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다.

[정답] ④

[정답해설] ㄹ은 목적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모시고’)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지만, ㄷ의 목적어인 아이들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 물론 객체를 높이는 표현도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해설] ① ㄱ과 ㄴ은 각각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와 선생님이 높임을 받고 있다.  
② ㄱ, ㄴ, ㄷ은 모두 듣는 이(청자)를 높이기 위해 상대높임법 중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였다.  
③ ㄴ에는 ‘집’ 대신에 높임의 어휘인 ‘댁’이, ㄹ에는 ‘데리고’ 대신에 높임의 어휘인 ‘모시고’가 사용되었다.

문 4.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같은 것은?

- ① 모두 제 잘못입니다.  
심판은 규칙을 잘못 적용하여 비난을 받았다.
- ② 집에 도착하는 대로 편지를 쓰다.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두다.
- ③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곳에 사무실이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 ④ 이 사과가 맛있게 생겼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정답] ③ ‘한자어 어근+적(的)’이 용언을 수식하면 부사, 체언을 수식하면 관형사, 조사와 결합하면 명사이다.  
둘 다 용언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오답해설] ① ‘잘못’이 서술격조사 ‘입니다’와 결합한 것은 명사, 용언을 단독 수식한 것은 부사이다.  
② 용언 뒤에 오는 ‘대로’는 의존명사이고, 체언 뒤에 오는 ‘대로’는 조사이다.  
④ ‘이, 그, 저’가 조사 결합 없이 단독으로 체언을 수식하면 관형사이고 조사와 결합하면 대명사이다.

문 5. 밑줄 친 한자 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이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捲土重來를 꿈꾸고 있다.
- ② 그는 魚魯不辨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③ 그는 이번 사건에 忸不關焉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④ 그의 말이 羊頭狗肉으로 평가받는 것은 걸만 그럴듯해서이다.

[정답] ②

[정답해설] ‘魚魯不辨(어로불변)’은 ‘어(魚)’자와 ‘노(魯)’자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②는 쓰임이 적절하지 않다.

- [오답해설] ① 捲土重來(권토중래): 땅을 말아 일으킬 것 같은 기세로 다시 온다는 뜻으로, 한 번 실패하였으나 힘을 회복하여 다시 쳐들어옴을 이르는 말.
- ③ 忸不關焉(오불관언): 나는 그 일에 상관하지 아니함.
- ④ 羊頭狗肉(양두구육):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보기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속은 변변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문 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해 버린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는 산철에도 나그뱃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을 못 했다. 밖에 불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열어 놓아야 했고, 분(盆)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우리들의 소유 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들뜬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이 육신마저 버리고 훌훌히 떠나갈 것이다. 하고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역리(逆理)이니까.

- ① 역설과 예시를 사용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논증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난초를 의인화하여 소유의 가치를 깨우치고 있다.
- ④ 단호한 어조로 독자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정답] ①

[정답해설] 마지막 문단에 언급된 ‘크게 버리는 사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역설이고, 난초를 기른 경험을 통해 무소유의 역리를 말한 것은 예시이다.

문 7. ㉠에 들어갈 시조로 적절한 것은?

우리말에서 공간적 개념은 흔히 시간적 개념으로 바뀌어 표현되곤 한다. 예컨대 공간 표현인 ‘뒤’가 시간 표현으로 ‘나중’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문학 작품에서 시간적 개념이 공간적 개념으로 바뀌어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다음 시조를 보자.



- ①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드냐  
이시라 헛더면 가랴마는 제 구뜰여  
보내고 그리는 情은 나도 몰라 흐노라
- ② 靑山은 내 뜻이오 綠水는 님의 情이  
綠水 흘러간들 靑山이야 變홀손가  
綠水도 靑山을 못 니져 우리 예어 가노고
- ③ 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春風 니불 아릿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④ 山은 냇 山이로되 물은 냇 물이 안이로다  
晝夜에 흘으니 냇 물이 이실쏬야  
人傑도 물과 鬮야 가고 안이 오노리라

[정답] ③

[정답해설] ㉠의 예는 앞 문장에 언급된 시간적 개념이 공간적 개념으로 표현되는 경우여야 한다. ③에 나오는 ‘동짓달 기나긴 밤’을 잘라내어 이불 아래 넣었다가 퍼졌다는 표현이 관념의 구체적 형상화(시각화)인데, 이것이 바로 시간적 개념을 공간적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다.

문 8. 밑줄 친 단어의 불규칙 활용 유형이 같은 것은?

- ① 나뭇잎이 누르니 가을이 왔다.  
나무가 높아 오르기 힘들다.
- ② 목적지에 이르기는 아직 멀었다.  
앞으로 구르기를 잘한다.
- ③ 주먹을 휘두르지 마라.  
머리를 짧게 자르다.
- ④ 그를 불운한 천재라 부르다.  
색깔이 아주 푸르다.

[정답] ③

[정답해설] ‘휘두르다’와 ‘자르다’는 모두 모음어미 앞에서 어간의 ‘르’가 ‘ㄹ르’로 바뀌는 ‘르’ 불규칙용언이다.

[오답해설] ① ‘누르다[黃]’는 모음어미 ‘아’가 ‘리’로 바뀌는 ‘리’ 불규칙용언이고, ‘오르다’는 ‘르’ 불규칙용언이다.

② ‘이르다[奎]’는 ‘리’ 불규칙용언이고, ‘구르다’는 ‘르’ 불규칙용언이다.

④ ‘부르다’는 ‘르’ 불규칙용언이고, ‘푸르다’는 ‘리’ 불규칙용언이다.

문 9. 다음 글에 나타난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서양에서 주인공을 ‘히어로(hero)’, 즉 ‘영웅’이라고 부른 것은 고대 서사시나 희곡의 소재가 되던 주인공들이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 영웅들은 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거나 신의 후손이기도 하였다.

신화와 달리 문학 작품은 인물의 행위를 단일한 것으로 통일시킨다. 영웅들의 초인간적이고 신적인 행위는 차차 문학 작품의 구조에 제한되어 훨씬 인간화되었다. 문학 작품의 통일된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대폭 수정되거나 제거되는 수밖에 없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을 모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문학의 인물이 신화의 영웅이 아닌 보통의 인간임을 지적한 것이다. 극의 주인공은 작품의 통일성을 기하는 데 기여하는 중심적인 인물이면 된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낭만주의 및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실제 인물인 양 따로 떼어 내어, 그의 개인적인 역사를 재구성해 보려고도 하였다. 그들은 영웅이라는 표현 대신 ‘성격(인물, character)’이라는 개념을 즐겨 썼는데, 이 용어는 지금도 비평계에서 애용되고 있다.

- ① 영웅이라는 말은 고대의 예술적 조건과 자연스럽게 관련된다.
- ② 신화의 영웅은 문학 작품에 와서 점차 인간화되었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은 신화적 영웅과 다르다.
- ④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역사적 영웅으로 재평가하려고 했다.

[정답] ④

[정답해설] 마지막 문단에서 낭만주의 및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실제 인물인 양 따로 떼어 내어, 그의 개인적인 역사를 재구성해 보려고도 했다는 언급이 나오는데, 이것은 작중 인물을 역사적 영웅으로 재평가하려고 했다는 말이 아니다. 그들은 작중 인물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문 10. ㉠ ~ ㉤에 들어갈 한자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토론은 어떤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뚜렷한 의견 대립을 가지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 ㉠ ) 형태이다. 찬성자와 반대자는 각기 ( ㉡ )를 밝히고,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며, 주장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상대방에게 인정될 수 있도록 자기의 주장을 펴 나간다. 토론에서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상대방이 인정하도록 하려면, 상대로 하여금 ( ㉢ )의 여지를 가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토론 참가자는 ( ㉣ )에 대한 충분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검토를 통해 자신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화법(話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    |    |    |
|---|----|----|----|----|
|   | ㉠  | ㉡  | ㉢  | ㉣  |
| ① | 論議 | 論據 | 論駁 | 論題 |
| ② | 論議 | 論制 | 論遽 | 論搏 |
| ③ | 論意 | 論旨 | 論難 | 論述 |
| ④ | 論意 | 論志 | 論據 | 論題 |

[정답] ①

[정답해설] ㉠ 論議(논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함. 또는 그런 토의.  
 ㉡ 論據(논거): 어떤 이론이나 논리, 논설 따위의 근거  
 ㉢ 論駁(논박): 어떤 주장이나 의견에 대하여 그 잘못된 점을 조리 있게 공격하여 말함.  
 ㉣ 論題(논제): 논설이나 논문, 토론 따위의 주제나 제목

문 11.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표어로 적절한 것은?

- 공중도덕 지키기를 홍보한다.
- 대구의 표현 방식을 활용한다.
- 행위의 긍정적 효과를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 ① 신호 위반, 과속 운전  
모든 것을 알아 갑니다
- ② 아파트를 뒤흔드는 음악 소리  
이웃들을 괴롭히는 고문 장치
- ③ 노약자에게 양보하는 한 자리  
당신에게 찾아오는 행복의 문
- ④ 공공장소에서 실천하는 금연  
우리의 건강을 지켜 줍니다

[정답] ③

[정답해설] ③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공중도덕 지키기를 홍보한 것이고, 두 문장은 비슷한 통사구조가 나란히 배열된 대구의 표현 방식이다. 그리고 요구된 행위(노약자들에게 자리 양보)가 행복의 문(은유법)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긍정적 효과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해설] ①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다. ②에는 행위의 긍정적 효과가 없다. ④ 대구의 표현방식이 없고, 행위의 긍정적 효과는 있으나 비유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문 12. 다음 한글 맞춤법 제6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ㅅ, ㅈ’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 ① 예시로는 ‘해돋이, 같이’가 있다.
- ② 위 조항은 한글 맞춤법 총칙 중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원리를 따른 것이다.
- ③ 종속적 관계란 체언, 어근, 용언 어간 등에 조사, 접사, 어미 등이 결합하는 관계를 말한다.
- ④ ‘잔디, 버티다’는 하나의 형태소에서 ‘ㄷ, ㅌ’과 ‘ㅣ’가 만난 것으로서 위 조항의 예에 해당된다.

[정답] ④

[정답해설] 구개음화 현상으로 발음되는 ‘ㅅ, ㅈ’은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조항에 대한 설명인데, 한 형태소에서 ‘ㄷ, ㅌ’과 ‘ㅣ’가 만난 것은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는 경우라서 위 조항의 예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 13.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모두 옳은 것은?

- ①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일어나 나갔다.  
그는 여전히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
- ② 가을 논의 벼가 한참 무르익고 있었다.  
그는 가방을 한참 바라보더니 가 버렸다.
- ③ 둘 사이는 친분이 두껍다.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층은 매우 두텁다.
- ④ 나이가 들어 머리가 많이 벗겨졌다.  
바나나 껍질이 잘 벗어지지 않았다.

[정답] ①

[정답해설] 채: 어떤 상태나 동작이 다 되거나 이루어졌다고 할 만한 정도에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를 이르는 말  
체: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척)

[오답해설] ② 가을 논의 벼가 한참 무르익고 있었다. → 한참: 어떤 일이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하거나 무르익은 때  
그는 가방을 한참 바라보더니 가 버렸다. → 한참: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

③ 둘 사이는 친분이 두껍다. → 두텁다: 신의, 믿음, 관계, 인정 따위가 굳고 깊다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층은 매우 두텁다. → 두껍다: 집단의 규모가 보통의 정도보다 크다

④ 나이가 들어 머리가 많이 벗겨졌다. → 벗어졌다(벗어지다: 머리카락이나 몸의 털 따위가 빠지다.)  
바나나 껍질이 잘 벗어지지 않았다. → 벗겨지지

(벗겨지다: 덮이거나 씌워진 물건이 외부의 힘에 의하여 떼어지거나 떨어지다.)

문 14.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바다’, ‘맑다’는 어근이 하나인 단일어이다.
- ② ‘회덮밥’은 파생어 ‘덮밥’에 새로운 어근 ‘회’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 ③ ‘결눈질’은 합성어 ‘결눈’에 접미사 ‘-질’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 ④ ‘웃음’은 어근 ‘웃-’에 접미사 ‘-음’이 붙어 명사가 된 파생어이다.

[정답] ②

[정답해설] ‘회덮밥’은 파생어 ‘덮밥’이 아닌 합성어 ‘덮밥’에 새로운 어근 ‘회’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문 15. 다음 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게 될 지역 주민들도 그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 그리고 그런 시설이 자기 고장에 들어서는 것을 받아들이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 고장에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 ㉢ 지역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뒤로 미루면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나와 내 이웃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 ① ㉠은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그러나’로 바꾼다.
- ② ㉡은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이므로 문단의 통일성을 위해 삭제한다.
- ③ ㉢은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으로 ‘지역 이기주의이다’로 순화한다.
- ④ ㉣은 주어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로 고친다.

[정답] ②

[정답해설] ㉡은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다. 글의 흐름상 반드시 있어야 할 내용이다. 삭제할 수 없다.

문 1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 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뺨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 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恨)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女鬼)가 뿔어 내놓은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헤쳐 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싸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 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 김승옥, 「무진기행」 -

- ① 소재의 의미를 비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낸다.
- ② 무진이라는 지역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③ ‘나’의 시선으로 전개되는 1인칭 시점의 서술이다.
- ④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정답] ④

[정답해설] 과거 시제를 사용한 것은 맞는데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했다는 설명은 틀렸다. 무진의 명산물인 안개를 묘사할 때 안개에서 받은 느낌을 “밤사이에 진주해 온 적군들”, “이승에 한(恨)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女鬼)가 뿔어 내놓은 입김” 등과 같은 비유를 통해 주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해야 맞다. 묘사에는 설명적 묘사와 인상적 묘사가 있다. 설명적 묘사는 대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묘사이다. 대상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그 결과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설명적 묘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치밀하게 그리는 것이므로 관찰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견해가 삭제된다. 이 때문에 설명적 묘사를 객관적 묘사라고도 한다. 이에 비해 인상적 묘사는 대상에서 받은 느낌이나 인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대상이 지닌 가장 특징적인 면이나 지배적인 인상을 잡아내어 느낀 대로 묘사하는 것이다. 관찰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느낌이 강조되므로 주관적 묘사라고도 한다.

문 17.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책 없이도 인간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한다. 그런데 책과 책 읽기는 인간이 이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차이를 가져온다. 책을 읽는 문화와 책을 읽지 않는 문화는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의 층위에서 상당히 다른 개인들을 만들어 내고, 상당한 질적 차이를 가진 사회적 주체들을 생산한다. 누구도 맹목적인 책 예찬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을 더욱 인간적이게 하는 소중한 능력들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는 매체라는 사실이다. 그 능력의 지속적 발전에 드는 비용은 싸지 않다. 무엇보다도 책 읽기는 손쉬운 일이 아니다. 거기에는 상당량의 정신 에너지가 투입돼야 하고, 훈련이 요구되고,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정신 습관의 형성이 필요하다.

- ① 인간의 기억과 상상
- ② 독서의 필요성과 어려움
- ③ 맹목적인 책 예찬론의 위험성
- ④ 책 읽기 능력 개발에 드는 비용

[정답] ②

[정답해설] 필자는 누구도 맹목적인 책 예찬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을 더욱 인간적이게 하는 소중한 능력들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책이 꼭 필요하다는 것과 그 능력의 지속적 발전에는 상당량의 정신 에너지와 훈련, 습관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문 18. ㉠ ~ ㉣에 들어갈 적절한 접속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역사의 연구는 개별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 ㉠ )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 자체에 대해 구명(究明)을 꾀하는 것이 역사학인 것이다. ( ㉡ ) 고구려가 한족과 투쟁한 일을 고구려라든가 한족이라든가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빼 버리고, 단지 “자주적 대제국이 침략자와 투쟁하였다.”라고만 진술해 버리는 것은 한국사일 수가 없다. ( ㉢ ) 일정한 시대에 활약하던 특정한 인간 집단의 구체적인 활동을 서술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역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 |         |    |     |
|---------|----|-----|
| ㉠       | ㉡  | ㉢   |
| ① 즉     | 가령 | 요컨대 |
| ② 가령    | 한편 | 역시  |
| ③ 이를테면  | 역시 | 결국  |
| ④ 다시 말해 | 만약 | 그런데 |

[정답] ①

[정답해설] ㉠에는 상술의 접속어가 와야 하므로 ‘즉’과 ‘다시 말해’가 올 수 있다. ‘가령’이나 ‘이를테면’은 예시의 접속어이므로 ㉠의 뒷문장이 구체적인 예가 아니므로 올 수 없다. ㉡의 뒷문장이 앞문장의 구체적인 사례이므로 ㉡에는 예시의 접속어인 ‘가령’이 와야 한다. ‘역시’는 올 수 없다. ㉢에는 ‘결국’과 ‘요컨대’가 올 수 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선지는 ①이다.

문 19.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고나.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을 보겠네.

저것 봐, 저것 봐,  
네보담도 내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 가는  
소리 죽은 가을 강을 처음 보겠네.

- 박재삼, 「울음이 타는 가을 강」 -

- ①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군.
- ② 첫사랑과 관련된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군.
- ③ 대조적 속성을 지닌 소재를 통해 정서를 부각하고 있군.
- ④ 전통적 어조를 사용해 예스러운 정감을 살리고 있군.

[정답] ②

[정답해설] ‘첫사랑’이란 시어가 3연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된 시어가 반복되지 않고 있다.

[오답해설]

- ①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은 저녁놀이 타는 강으로서 시각을 청각화한 공감각적 이미지이다.
- ③ 시인은 대조적 속성을 지닌 ‘물’과 ‘불’이 지나는 소멸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인간의 본원적인 한(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울음이 타는 가을 강’으로 대표되는 ‘물’의 이미지가 청각적 심상을 통해 소멸성을 드러내는 한편, ‘해 질 녘 울음이 타는’으로 대표되는 ‘불’의 이미지는 시각적 심상을 통해 소멸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④ ‘-고나’, ‘~것네’와 같은 민요체의 종결 어미를 통해 애상과 영탄을 표현하고 예스러운 정감을 살리고 있다.

문 2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길동이 “형님께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 소제(小弟)를 잡아 보내시되, 장교 중에 부모와 처자 없는 자를 가리어 소제를 호송하시면 좋은 묘책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감사가 그 뜻을 알고자 하나 길동이 대답을 아니 하니, 감사가 그 생각을 알지 못해도 호송원을 그 말과 같이 뽑아 길동을 호송해 한양으로 올려 보냈다.

조정에서 길동이 잡혀 온다는 말을 듣고 훈련도감의 포수 수백을 남대문에 매복시키고는, “길동이 문 안에 들어오거든 일시에 총을 쏘아 잡으라.” 하고 명했다.

이때에 길동이 풍우같이 잡혀 오지만 어찌 그 기미를 모르리오. 동작 나무를 건너며 ‘비 우(雨)’ 자 셋을 써 공중에 날리고 왔다. 길동이 남대문 안에 드니 좌우의 포수가 일시에 총을 쏘았지만 총구에 물이 가득하여 할 수 없이 계획을 이루지 못했다.

길동이 대궐 문 밖에 다다라 자기를 잡아온 장교를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날 호송하여 이곳까지 왔으니 문죄 당해 죽지는 아니하리라.” 하고, 수레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다. 오군영(五軍營)의 기병들이 말을 달려 길동을 쏘려 했으나 말을 아무리 채찍질해 몬들 길동의 축지하는 법을 어찌 당하랴.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그 신기한 수단을 헤아릴 수 없더라.

- ① 서술자가 길동의 장면 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 ② 호송하는 장교를 배려하는 길동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 ③ 비현실적 요소를 도입하여 길동의 남다름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길동이 수레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④

[정답해설] 길동이 수레에서 탈출하는 모습은 마지막 문단에서 찾을 수 있는데, “수레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비유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출제분석>

출제 영역		문항수	비고		
현대문법	이론 문법	언어의 특성과 기능			
		문법단위(음운, 형태소, 단어)			
		단어형성법	1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구분	
		품사	2	용언의 활용구분, 품사의 구분	
		문장성분의 종류			
	규범 문법	문장의 기능과 유형	1	높임법의 종류와 높임의 대상 구분	
		한글맞춤법	1	구개음화	
		혼동어휘	2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띄어쓰기	1		
		문장부호			
어법에 맞는 표현					
문학	독해	현대시	1	박재삼 '울음이 타는 가을 강' - 종합적 감상	
		현대소설	1	김승옥 '무진기행' - 내용 전개 방식	
		현대수필	1	법정 '무소유' - 표현상 특징	
		고전시가	1	시간적 개념의 공간적 개념화	
		고전소설	1	허균 '홍길동전' - 표현상 특징	
		고전수필			
	이론	문학이론, 갈래이론			
		문학사			
	비문학	독해	비문학독해	3	필자의 견해, 중심내용, 접속어 넣기,
		기타	쓰기, 말하기	2	조건에 맞는 글쓰기, 고쳐쓰기
논리와 오류					
한자와 어휘	한자	한자성어	1		
		한자독음			
		한자표기	1	논의, 논거, 논박, 논제	
	어휘	단어의 의미(사전적, 문맥적)			
		속담, 관용표현			
		어휘 간의 관계			
동음어와 다의어					